

대한유방검진학회지 창간사

오 기 군

대한유방검진학회 회장

우리나라 여성의 유방암 발생율은 구미서구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최근에 빠른 추세로 증가하여 2001년 국립암센터의 암발생 발표 이후부터 유방암이 우리나라 여성암 발생 제 1위를 차지하게 된 것에 경각심과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여성의 건강을 관리해야 하는 의료인의 입장으로서 당연한 귀결임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여성들도 유방암을 조기발견 하여야 한다는 목적으로, 정기적인 선별검사인 유방촬영술에 대한 관심도가 날로 증가하여, 수 많은 여성들이 일정한 제도나 규칙 없이 자의로 전국의 많은 의료기관을 방문하며 유방검진을 시행 받고 있다. 그러나 간혹 의료진이나 여성들 자신들도 무증상여성에서 행하는 정규 유방검진과 유방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질환의 정확한 진단을 목적으로 행하는 진단적 유방검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유방검진을 시행해야 하는 최초 연령, 시행하는 기간 등에 대한 정확한 교육과 정보의 부족으로 방황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유방촬영검사를 시행할 때 품질의 정도관리가 잘 되어있지 않은 유방촬영기를 사용함으로써 과다한 방사선 피폭과 낮은 질의 영상사진을 만들게 되고, 전문판독 유자격자들에 의하지 않고 판독업무를 시행함으로써 미세유방암에 대한 오진과 함께 유방암을 간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진행된 유방암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양질의 유방촬영 사진을 얻기 위해, 높은 대조도와 해상도를 보이는 유방촬영술의 정도관리에 대한 훈련과 이해는 유방영상을 하는 의사에게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유방촬영의 정도관리는 환자가 검사하여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하며, 정확한 진단을 위한 양질의 유방촬영 화질을 얻기 위해서 실행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법을 말하며, 이 필수적인 임무도 보건복지부와 정도관리재단인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의 설립과 동시에 대한유방검진학회의 역할이 지대해 지리라고 사료된다.

유방암정책을 포함한 보건복지부의 한국인 5대암 정복과 예방, 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오던 초기 보건복지부 산하의 암정복 추진 계획단장이시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노경 교수님의 노력과 많은 관련 분야 학자들과 함께 유방암 조기진단 분야에서 암정복에 대한 개념이 싹트면서, 이것은 범국가적으로 유방암에 대한 정복과 대책을 펼쳐 나가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유방암의 원인 규명 및 유방암에 대한 미연의 방지 대책, 그리고 유방암의 이차 예방이라고 할 수 있는 유방촬영술등 유방영상을 통하여 무증상 여성에서 조기유방암을 발견함으로써 여성의 생존율을 높이고 술 후에도 질적으로 향상된 여성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의 유방암의 정복이라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몸소 느끼고 있는 시기라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국가적인 확고한 개념은 이미 부분적으로 법적인 규칙을 만들어 시행 하고 있었으며, 유방암을 책임 지려는 수많은 의료인, 관련 의료 단체들의 노력으로, 신문이나 방송 매체를 통한 대한민국 여성들의 유방암에 대한 지식수준은 산발적이거나 조기유방암의 개념과 조기유방암 진단과 치료만이 여성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의식이 이미 고취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조기유방암진단을 위한 검진제도(screening system)의 결여, 내지 홍보미숙, 검진절차에 대한 범 국가 사회 단체의 정확한 안내, 미세 조기유방암을 탐색하기 위한 고화질의 정도관리가 인증된 유방영상기구를 통한 전문 판독자들의 이중 검색방법인 이중판독(double reading)제도, 정도관리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가진 단체의 역할과 의무 등이 아직까지 미미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유방촬영술 정도관리의 법제화는 이미 2001년 1월에 공포, 그 시행이 6개월 이후로 예정되었다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중 개정령안의 주요 개정 이유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이 제정 (2002년 1월 19일 법률 제6620호) 됨에 따른 특수 의료장비 설치 및 · 운영에 관한 규칙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규정을 보완 · 정비하고 2002년 6월1일 보건복지부장관령의 보건복지부 고시<예시>인 제 2002-00호의 특수장비 고시 제정에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 제14조 특수의료장비로는 컴퓨터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자기공명촬영장치로서 2002년 7월1일 부터 시행한다라고 고시되었고 이것을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정도관리재단인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 2004년6월에 이미 발족 되었다.

따라서 대한유방검진학회 회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유방암 조기탐색과 진단을 위한 유방검진사업의 실행과, 학문적이고도 국가적인 유방암정복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한국인 유방암의 특성이 구미제국과 달라서, 비교적 젊은 여성군의 유방암이 호발 하고, A type의 유방암 발병 연령군층의 원인도 밝혀져, 모든 한국인 무증상 여성에서 조기유방암의 원인규명, 조기탐색, 유방암 진단과 관리 및 대책이 체계적이고도 조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

이 큰 뜻을 위하여, 2004년 3월 25일 창설된 대한유방검진학회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2004년 7월 11일 제1회 대한유방검진학회를 개최하고 제1회 대한유방검진학회지 창간호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을 가슴 속 깊이 기쁘게 생각하며, 이 일을 진행하기 까지 적극적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보건복지부 암관리과 류근혁 과장님,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밤낮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유방 관련 학회인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의학물리학회, 대한진단병리학회 등 대한유방검진학회 모든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해 마지 않는다.

축 사

한 만 청

서울대학교 방사선과 명예교수

대한유방검진학회 창립과 창간호 발행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유방암은 이제 국내에서도 여성암의 1위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질환으로 부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방암의 조기검진이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양적으로 많은 유방검진이 시행되어 왔으나 질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유방검진의 질적인 관리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때맞추어 대한유방검진학회가 창립된 것은 시기 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한 학술단체로 생각됩니다.

대한유방검진학회의 창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대한방사선의학회 산하 유방연구회가 주축이 되어, 꾸준히 정도관리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해온 결과 그 결실을 맺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유방검진의 기초를 다지고 연구하셨던 방사선과학, 예방의학, 병리학, 의학물리학 등 여러 분야의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 연구하고 좀 더 나은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대한유방검진학회는 학문적 발전을 위한 노력 뿐만 아니라, 유방암 조기검진을 위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및 교육, 건강보험이나 보건정책수립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전 여성의 건강, 가정의 행복, 더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추구하는데 큰 일익을 담당하리라 생각되며, 큰 기대가 됩니다. 또한 새로이 창립되는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과 함께 의료영상의 정도관리를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향후 대한유방검진학회가 타의 모범이 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학회로 발전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귀 학회와 학회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한유방검진학회지 창간호 발간을 축하하며

맹 광 호

대한예방의학회 회장

대한유방검진학회 학회지 창간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3월 학회 창립 준비 모임에도 초청을 받아 참석을 하고, 그 때도 간단한 축하의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불과 몇 달 만에 학회지 창간호를 발간하는 등 발 빠른 학회 발전 모습을 보여주는 학회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준 높은 유방암 조기검진을 위한 학술 연구와 교육 활동을 목적으로 발족한 대한유방검진학회는 날로 증가하는 우리나라 암 발생과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최근 정부의 국가 5대 암 관리사업계획과 때를 같이 하는 것이어서 무엇보다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매년 암으로 인한 사망은 우리나라 사람 전체 사망의 25% 수준으로 원인별 사망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유방암은 폐암과 함께 매년 그 발생과 사망이 증가하고 있는 중요한 질병입니다. 최근 각종 암에 대한 치료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고는 해도 역시 암은 치료가 매우 어려운 무서운 병이고 치료를 위한 의료비 부담 또한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질병보다 예방이 중요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유방암에 대해서도 역학적 유방암 발생 관련 요인 규명 연구들이 예방의학 특히 역학 분야에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런 연구를 통해 일부 위험 요인으로 규명된 지방 음식 섭취를 피하도록 하는 등 1차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 그 실천이 쉽지가 않아서 예방적 효과 또한 매우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교적 조기암 치료율이 높은 유방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유방검진활동은 이미 선진 외국들에서 이 암에 대한 2차 예방방법으로 매우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그 동안 오로지 치료적인 접근으로만 국민 건강에 기여해온 임상의학 분야 의사들이 중심이 되어 2차적인 암 예방을 염두에 둔 조기진단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이와 관련된 학술 연구와 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해 학회를 만들고, 그 첫 사업으로 학회지 창간호를 발간하게 된 것은 참으로 크게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예방활동이 그렇지만 암 조기진단을 통한 2차 예방 활동도 그것이 하나의 공중 보건 활동으로서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비용-효과문제와 공중 보건 윤리 문제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한유방검진학회의 연구나 관련자 교육 활동 중에는 단순한 진단 기술적 문제에만 관심이 집중되어서는 안되고, 이 일을 통한 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 문제와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진단 활동에 있어서 개인의 자율성 존중이나 의료자원 분배의 정당성과 같은 관련 윤리 문제도 함께 연구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유방검진학회의 창립을 축하하며

김 성 규

대한의학물리학회 회장

대한유방검진학회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한국의학물리학회가 창립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창립에 힘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대학이 존재하는 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한, 학회는 계속해서 창립될 것이며, 계속 발전할 것이며, 또한 어떤 학회는 소멸되기도 할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정열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뉴턴의 일생은 감동적 입니다. 뛰어난 천재 뉴턴은 20대에 런던 왕립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뉴턴은 이 무렵부터 “왜 모든 물체는 밑으로 떨어지는가?”하는 화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런던에 전염병이 돌아 뉴턴은 고향인 울즈돔이라는 조그마한 마을로 내려와 몇 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 때 뉴턴의 하루 일과는 온통 “왜 모든 물체는 밑으로 떨어지는가?”하는 생각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도 사색에 잠겨 있는데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을 생각했으며, 그 후 평생을 만유인력을 수식화하는 데 몰두하게 됩니다. 결국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끝없는 정열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학회가 지니고 있는 오래된 역사도, 학문의 축적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학회가 무엇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앞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학회의 흥망성쇠는 좌우될 것입니다. 역사 속에 우뚝한 대한유방검진학회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축 사

김 건 상

대한의학회 부회장

우리나라도 세계화, 선진화 속에 유방암의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5대암 검진사업의 하나로 유방암 검진이 시작하게 된 것은 당연하고도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유방암 검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질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정도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불량장비와 비 전문 인력에 의한 부적절한 검사와 영상 판독으로 오진과 과잉진료가 빈번히 발생한다면, 유방암 검진 사업의 의미는 없으며, 오히려 여성의 삶의 질의 저하와 경제적 손실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인증제도 및 법적인 관리 하에 정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의 효과는 입증된 바 있습니다. 늦게나마 우리나라도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정도관리를 시작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유방검진학회의 창립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나라 실정과 우리나라 여성 유방암의 특성에 맞는 표준검진체계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연구 및 교육, 인증사업, 대국민 홍보 사업 등을 시행해 나아가야 할 때이며, 이의 주축은 대한유방검진학회가 맡아 나아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동안 학회 창립 및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오기근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대한유방검진학회의 발전과 세계적인 학회로의 도약을 지켜보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